

태풍 지나가고 불청객 '식중독'이 파고 든다

고온다습해져 식중독 발생 위험 높아져
식품취급·조리과정서 위생 철저히 해야
냉장보관한 조리식품 재가열 후 먹어야
영유아·노약자 수분 공급·조기치료 필요

태풍이 지나가고 늦더위가 찾아오면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약자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중독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식중독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식중독균은 닭, 오리, 돼지 등의 내장이나 자연에 퍼져있는 살모넬라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전체 식중독 환자 가운데 67%가 8~9월에 나왔다.

살모넬라균은 날계란이나 덜 익힌 계란, 조리 후 오래된 계란 음식을 통해 주로 감염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의 약 77%는 계란이나 계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을 통해 감염됐다.

허양임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살모넬라균은 특히 달걀을 통한 감염이 잦기 때문에 달걀 껍질이 깨졌거나, 배설물로 더럽다면 버려야 한다"면서 "오염된 음식을 먹고 8~48시간이면 고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식품의 취급과 조리 과정에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에 오염된 음식은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어 육안으로는 판별하기 힘들어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식사 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 음식을 조리할 때 육류는 75도, 어패류는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바로 먹고 남은 음식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도마나 칼, 행주 등은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려 소독하거나 삶아야 한다. 칼, 도마 등을 사용할 때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 소독해야 한다.

조리한 식품은 냉장 보관했다더라도 재가열 한 후 먹어야 한다. 식재료가 요리 중이나 이동 중 오염이 된 경우 냉장고에 넣어두더라도 음식물 속에 균이 그대로 살아있고 냉장고 속에서도 충분히 자랄 수 있어서다.

보통 성인은 식중독균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1~3일 이내 자연 치유된다. 하지만 영유아나 고령층, 만성 질환자의 경우 식중독에 걸렸다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허 교수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약자, 만성 질환자들은 식중독에 걸리기 쉽고,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다"면서 "우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 탈수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신속히 병원으로 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뉴스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식중독균 배양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독감' 동시유행 경고등... "트윈데믹 가능성 크다"



당국은 당분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새로운 변이 출몰과 동절기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이 변수라고 밝혔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6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의 유행은 지금 정점 구간을 지나서 감소세에 있고,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다면 당분간은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단장은 "인구집단 내 면역이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확산세와 같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비수도권 '높음', 전국과 수도권은 각각 '중간' 단계다. 비수도권은 5주째 '높음'을 유지했고 전국과 수도권은 9주째 변동이 없다.

임 단장은 "의료대응·위중증·사망·확진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정점 구간으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전 주와 동일한 위험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인구집단 내 면역 높아...유행 안정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 가능성 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5주째 동일

주간 확진자 수는 약 59만8000명, 하루 평균 8만5540명이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대비 22%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3으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 미만을 2주째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전주대비 21.8% 감소한 467명, 사망자는 0.8% 감소한 515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94%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우세종인 BA.5의 검출률이 96.0%, 국내 감염 중에선 98.1%를 차지했다.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는 34건이 추가돼 누적 136건이 파악됐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평균 25.3%로 전주대비 1.7% 포인트 증가했다.

임 단장은 최근 의심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플루엔자(계절 독감)의 유행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같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으로는 구분이 사실상 어려워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발생 우려가 제기돼왔다.

임 단장은 "최근 남반구에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인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어 면역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동시 유행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단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해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이고 마련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나도 모르게 코로나19 감염' 얼마나 되나... "이달중순 발표"

방역 당국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자연감염자와 미진단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는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9월 중순께 발표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항체양성률 진행 결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를 곧 앞두고 있다. 1차 진행 상황까지 중대본에 한 번 보고하고, 상세 분석에 대해서는 9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과학 방역의 근거가 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분기별로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지난 5월 중 2분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표가 늦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말 "1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결과를 9월 중 도출하겠다"고 일정을 못박았다.

이번 항체양성률 조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실태조사로, 그동안 정부가 파악한 확진자 수와 항체보유자 수를 비교하면 자연 감염자와 숨은 감염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스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효호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경구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